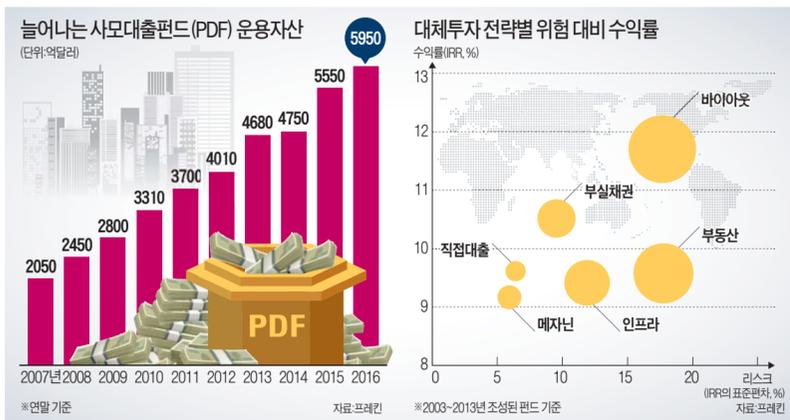


# 뭉치돈 몰리는 글로벌 PDF시장 ... “아시아·남미 신흥국 노려라”

(사모대출펀드)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SK 2017 글로벌 사모대출펀드 서밋' 만찬에 참석한 23개국 대체투자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루크 엘리스 맨그롭 사장, 강연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강성석 교직원복지회 금융운용총괄 이사.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 저금리시대 대체투자 전략

은행 대출 비중 갈수록 축소  
빅데이터 활용 비금융사 성업

美·유럽 등 대출 수익률 6%  
亞·남미선 14%로 2배 넘어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릭 노엘 버드데파트너스 파트너)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17일 개막한 'ASK 2017 글로벌 사모대출펀드 서밋' 첫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유망하게 본 대체투자처는 단연 사모대출펀드(PDF)였다.

### 은행 대체하는 투자사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로 글로벌 대출시장에서 은행 역할이 축소되면서 그 빈자리를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이나 투자사들이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 사모대출펀드(PDF)

private debt fund.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은행처럼 기업에 직접 빌려주거나 하이일드(고위험·고수익)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펀드.

프레이컨에 따르면 2006년 1470억달러(약 164조원)였던 세계 PDF 운용자산 규모는 지난해 5950억달러(약 665조원)로 급증했다.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운용사 버드데파트너스의 릭 노엘 파트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4개였던 스페인 은행 수가 현재는 13개로 줄어드는 등 은행 역할이 축소되는 추세”라며 “비은행 금융회사가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8년 31%였던 대출 시장에서의 은행 비중이 최근 24%로 줄어들었다.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 경제인

서유럽 역시 2006년 90%에 달했던 대출시장에서 은행의 비중이 75%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32조달러, 유럽에서는 27조달러 규모의 사모대출 시장이 지난 10년 새 새로 생겨났다는 설명이다. 호주·뉴질랜드에서도 2006년 89%를 차지했던 은행 비중이 77%로 줄어 2750억달러 규모의 사모대출 시장이 열렸다.

###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축 필수

PDF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이 모이면서 투자경쟁이 많아지는 것은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톨카 프레이컨 실물자산본부 대표는 “최근 PDF 운용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31%가 자산 가격이 올라 과거에 비해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은 역시 투자 대상 다변화”라고 입을 모았다. 패트릭 스티츠 베이스어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PDF 투자

자들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벗어나 한국 호주 등 신흥국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은행들이 신흥국 대출을 눈에 띄게 줄여가고 있지만 신흥국 은행이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티츠 CIO는 “미국과 서유럽의 선순위 대출 평균 수익률은 연 6~8%에 머물지만 남미 아시아 등 신흥 시장의 수익률은 연 12~14%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우 클리어워터캐피탈파트너스 상무는 “아시아 신흥 시장에 주목하라”고 주문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아시아 하이일드(고위험·고수익) 채권의 부도율은 2.55%로 미국(3.55%)보다 오히려 낮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유정재/김우섭/나수지 기자 yoochoo@hankyung.com

## 빠른 투자집행·저렴한 수수료 매력 사모시장 대세로 떠오른 공동투자

17일 ASK 서밋에선 대체투자시장의 새로운 관심 분야로 떠오른 ‘코인베스트먼트(공동투자)’ 전략이 소개됐다.

공동투자란 사모펀드(PEF) 운용사(GP)가 기업 인수에 나설 때 투자자(LP)가 함께 참여해 소수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거래를 말한다. LP가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 조성 시 운용사에 수수료 줄 필요가 없다. 한 번에 대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성지 헤밀턴레인 한국지점 상무는 “공동투자 전략은 PEF의 기업 인수에 참여하면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가 21년간 유지한 공동투자자들의 수익은 투자금 대비 평균 2배를 웃돌았다. 2014년 미국 유리병 제조업체 앵글라스 투자건은 약 2년 만에 5배 넘는 투자수익을 공동투자자에게 안겨줬다.

대체투자 전문자산운용사인 헤밀턴레인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연도	은행대출	공동지분투자	은행지분투자	운용사4곳
2007년	100	9.42	2.18	28
2016년	90	5	25	7.5

※헤밀턴레인 자체 투자실적 기준

### 대체투자 전문 헤밀턴레인 21년간 원금 대비 2배 수익

세계 주요 지역에서 약 3300억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운용사 관점에서 공동투자의 매력은 하나의 거래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 운용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접 지분인수에 참여하는 LP는 일반적으로 해당 PEF 운용사의 기준고객인 경우가 많다.

안 상무는 과거엔 대규모 사모투자의 전형적인 구조가 4~5곳의 PEF 운용사가 모여서 투자를 주도하는 ‘클럽딜(club deal)’ 방식이었지만 갈수록 LP들의 직접 지분투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조사 결과 공동투자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프랑스 사모투자회사인 아스틀 그에셋메니지먼트의 제프리 오렌스타인 공동투자 총괄매니저는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LP가 많지만 우량한 투자대상이 부족해 한 거래에 5~6개 LP만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LP에 투자 기회를 열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업체 오토폼에 투자하며 16개 기관으로부터 공동투자 방식으로 2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했다.

계약회사인 HRA를 인수할 때도 골드만삭스와 함께 2억2000만 유로의 자금을 신속하게 모집해 시장의 관심을 보였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 미래지향 기술 판도 바꿀 기업

## 벤처투자 성공의 5가지 비법

“벤처기업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식스 에드백 매니지먼트 아태지역 대표는 17일 ASK 서밋에 연사로 나서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벤처기업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령을 소개했다. 미래지향적인 기술 확보, 판도를 바꿀 기업에 집중, 미국의 지

역으로 투자 확대, 투자 과정 경제, 투자 조건 최적화 등이 그가 제시한 벤처투자 성공 비법이다.

그는 “도서 판매로 시작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는 미래지향적 산업에 집중해 전혀 다른 회사로 탈바꿈했다”며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기업가치는 전통 자동차 기업인 포드를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문이다. 식스 대표는 “전체 투자기업 중 상위 7%가 전체 수익의 50% 가량을 올리고 있다”며 “미래를 선도하는 능력을 갖춘 기업에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유럽 중국 등으로 투자 지역을 넓혀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기업 가치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가

넘은 우량 벤처기업들이 미국 외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체 우량 벤처기업 중 미국에 기반을 둔 업체는 약 60%에 불과하다”며 “미국에만 주목하다 보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투자 과정 현상을 경계하는 것 역시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목했다. 2000년대 초반 닷컴거품 때처럼 최근 벤처기업의 기업가치가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 5월 20일(토), 5월 21일(일) 오후 2~5시 긴급강연회 개최

# 드디어 2년짜리 대세상승장이 온다.

차원이 다른 명쾌한 특강 - 명동고래가 떴다.

### 트럼프 충격정책 효과 세계증시 밸리 2년 연장!

- ① 법인세 혁명적 감세효과?
- ② 1조\$ 인프라 투자효과
- ③ 미 우선주의 촉발 글로벌 친기업정책밸리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요인 복핵 신해법 나온다.

- ① 미·중 압박과 북미접촉
- ② 한반도 6자 신평화구도
- ③ 판을 엮어야 큰변화 온다

### 신정부 대운을 탔다!

- ① 업종 구조조정 완료
- ② 4차 산업혁명과 시장다변화
- ③ 지배구조개선의 혁명시작

### 〈증권가의 신화 조승제 회장〉

고려대 경영학 석사  
미래투자자문 대표  
(前)마이애셋자산운용 대표  
25개 증권사 및 3대투신사 임직원 교육  
최고 경영자 과정(CEO) 교육

### 주요강연내용

- (1) 신정부 2년 대세상승장 오는 논리
- (2) 구조조정 끝난 업종별 시나리오
- (3) 문재인 정부 신정책 집중분석
- (4) 트럼프와 사드보복은 최대 축복이다.
- (5) 한국기업의 신활약시대 온다.
- (6) 부동산경기 지속 상승한다.
- (7) 비관론자들이 간과한 신경기 사이클의 구조변화 - 과거와 확 다른 사이클
- (8) 상법개정 - 기업지배구조 대변혁

### 강연회 참석안내 (토, 일 내용동일)

- 일 시 : 2017년 5월 20일(토)·21일(일), 2시~5시
- 가 격 : 10만원(카드 11만원)
- 장 소 : 공평학원 건물 3층 대신빌딩 슈퍼라이온 아카데미 (1호선 종각역 4번 출구 나오자마자 보신각 끼고 100M 직진 도보 1분)
- 문의전화 : 02-720-7680

### 화요 주식투자반 모집

- ▶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2시간, 월4회 강의)
- ▶ 실전투자 교육생 모집(종목추천에서 매도까지)
- ▶ 문의전화 : 박이사 010-3773-0074